

## 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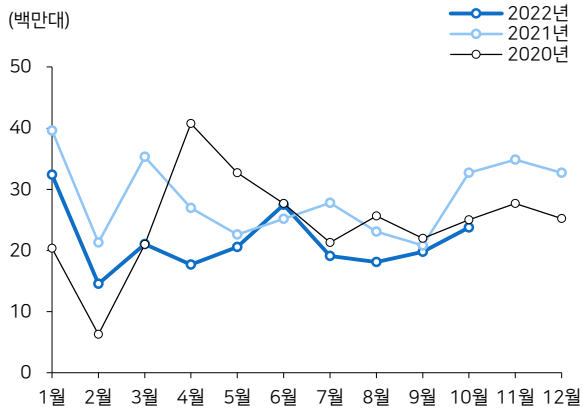
### 중국 10월 스마트폰 출하량 코멘트

#### ● 전기전자/IT부품장비

Analyst 양승수  
02. 6454-4875  
seungsoo.ya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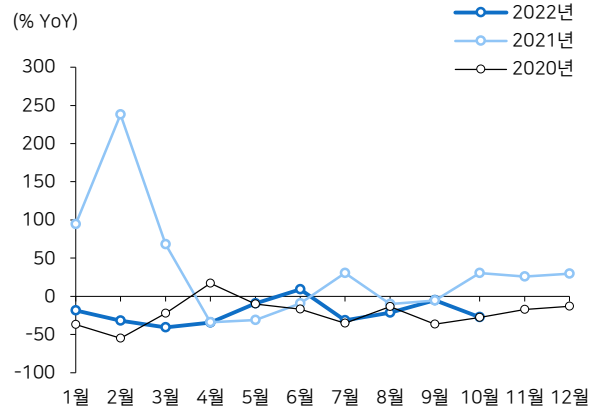
- 중국 10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2,378만대(+20.1% MoM, -27.2% YoY)로 4달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 기록. 중국 내 스마트폰 교체주기 장기화, 재고 조정, 도시 봉쇄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지속.
- Apple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Non-Local 핸드셋 출하량은 755만대(+191.1% MoM, -29.9% YoY) 기록. 점유율 기준 31.0%(전년도 10월 점유율 32.1%)
- 9월, 10월 Non-Local 핸드셋 합산 출하량은 1,014만대(-14.9% YoY)로 작년 1,192만대 대비 -14.8% 감소. 10월 중순 이후 발생한 정저우 도시 봉쇄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진.
- Apple을 제외한 Local 브랜드의 핸드셋 출하량은 1,680만대(-8.3% MoM, -26.3% YoY) 기록.
- 5G 단말기 출하량은 1,950만대(+29.1% MoM, +16.4% YoY) 기록. 전체 모바일 폰 중 5G의 비중은 80.1%. 최근 1년의 평균 비중은 78.7%로 아이폰 14 위주로 반등 성공
- 10월에 출시된 스마트폰 신모델은 33개로 전월 28개 대비 소폭 증가. 5G 신모델은 20개로 전체 스마트폰 신모델의 61% 차지
- 10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2,090만대 전후로 파악되기 때문에 출하량 부진에도 재고가 축소되지 못함. 다만 11월은 주요 도시 폐쇄 영향으로 출하량 측면에서 극도의 부진이 예상되나 판매량 측면에서는 11월 11일 광군제를 통한 회복이 예상. 이를 통해 중국 내 재고는 11월 다시 축소될 전망. 관건은 12월. 주요 스마트폰 세트업체가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의 판매량 회복을 통해 12월도 재고소진이 발생한다면 내년 중국 스마트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

그림1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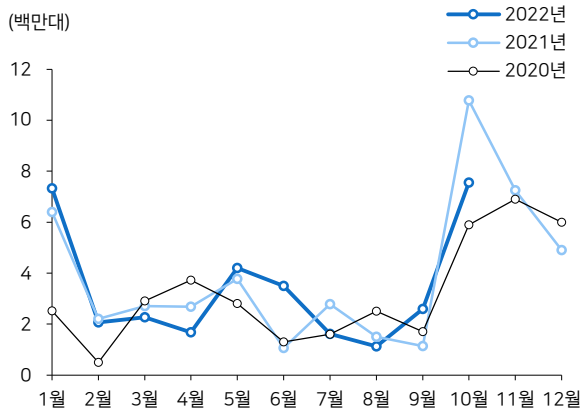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중국 스마트폰 YoY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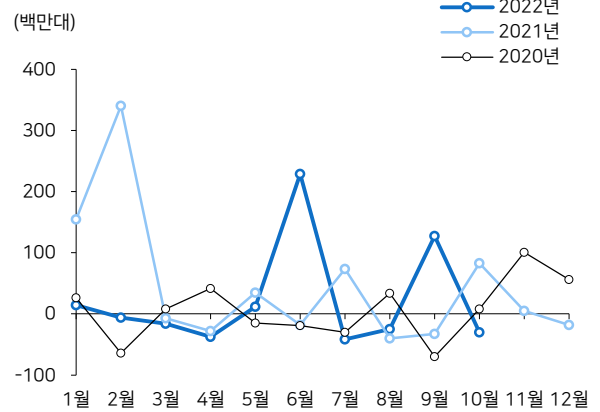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 Non-Local 브랜드 월별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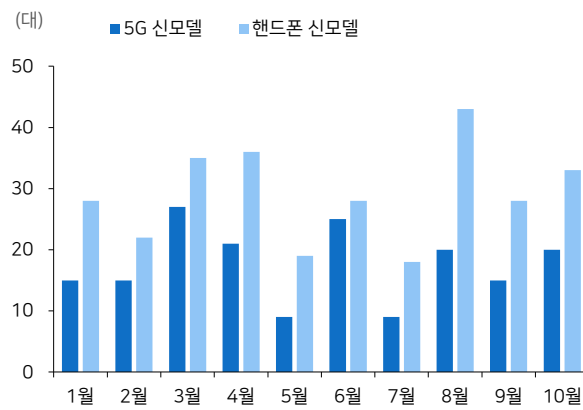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중국 Non-Local 브랜드 YoY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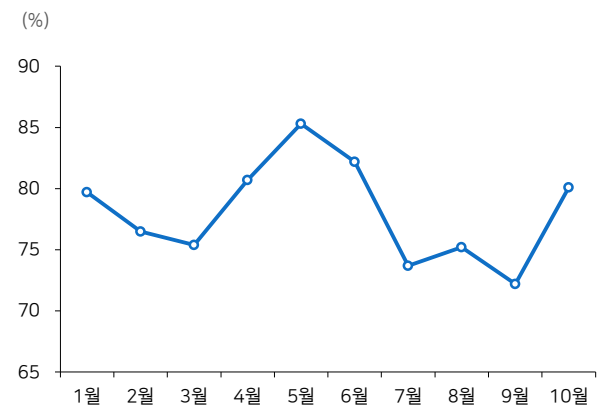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 내 신모델 출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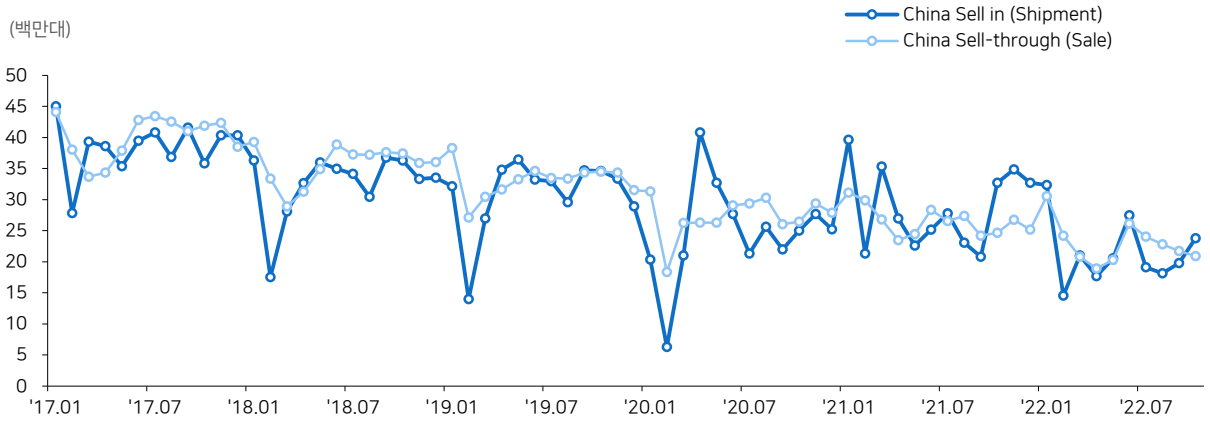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 모바일 폰 내 5G 비중 추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국 채널재고 소진 현황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